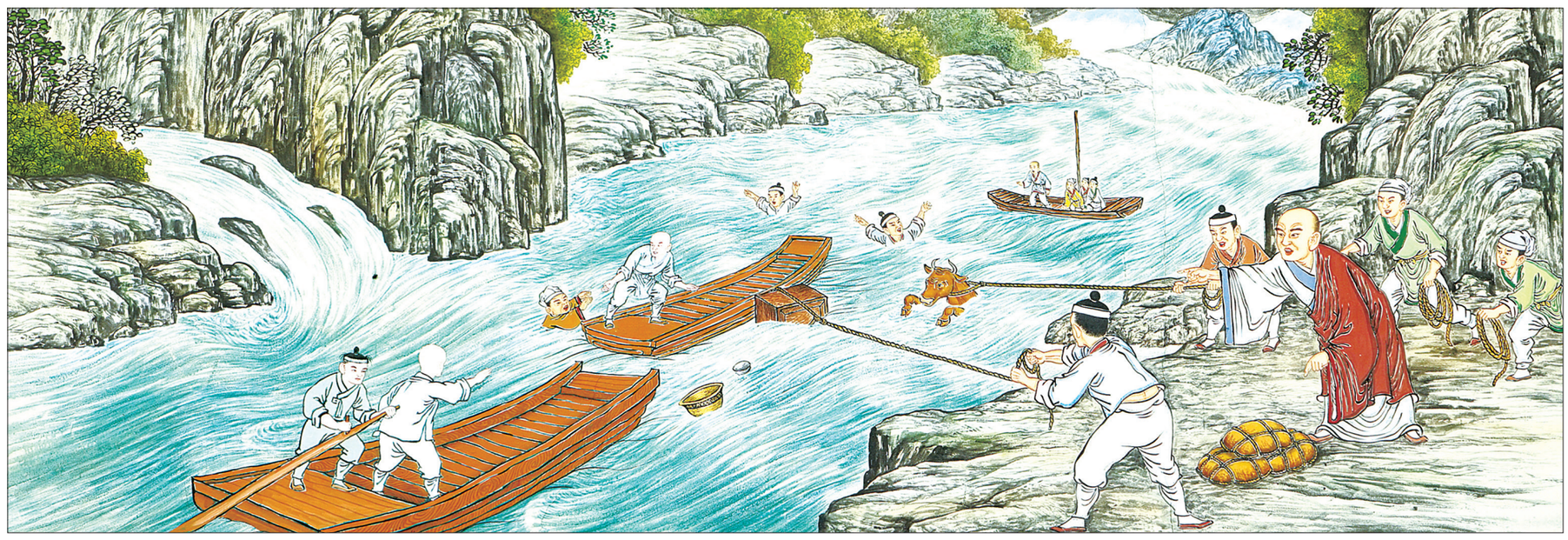
배 띄우고 밥 지어 구제…불교, 민중 곁에 있었다

재난시대와 불교

한국불교 재난 · 재해 구호사

가뭄 극복 기우제, 왕실 치병 등
삼국시대에는 불교 의례 동원
고려시대, 사찰서 구호 활동해
자선 위한 사찰 '보통원' 설치
조선시대에도 급식 · 구호 이어져
봉은사 청호 스님, 을축대홍수서
708명 구제…공덕비 조성 · 선양



을축년(1925년) 한강 대홍수 당시 청호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의 구호 모습을 그린 봉은사 법왕루 외벽 벽화. 청호 스님과 대중들은 목선 5척을 구입해 고립된 마을 주민 708명의 목숨을 구했다. 사진 제공=봉은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25년 7월 6일 시작된 비는 여느 해 장마와 달랐다. 며칠 내리다가 말겠지 했던 비는 장장 보름 동안 이어졌고 한강은 범람했다. 20세기 최악의 홍수로 기록된 '을축대홍수'다. 특히 저지대였던 한양의 뚝섬 일대는 상황이 심각했다. 7월 16~17일 집중호우로 용산 제방이 무너졌고 오늘날 송파·강남 일원의 마을들이 침수됐다.

물에 갇힌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바로 봉은사 주지 청호 학밀 스님이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를 마련한 스님은 목선 세 척으로 부리 주민 114명을 구조해 절에 머물게 했고, 18일에는 배 두 척을 더 사들여 잠실 주민들을 구했다. 구조된 이들이 몸을 의탁한 곳은 봉은사였다.

신문 등의 기록마다 차이는 있지만 청호 스님이 구호한 이들은 708명에 달한다. 스님의 구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구호받은 주민들의 발의로 기념비가 세워졌고, 1929년 5월 27일 봉은사에서 제막식이 열렸다. 홍수 현장의 구조와 사찰의 이재민 수용은 신문 기사와 기념비에 각각 기록됐다.

이처럼 불교가 재난 재해에서 민중을 위해 구호하고 마음을 돌봤던 것은 한반도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불교가 재난과 질병에 대응한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사료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가뭄에 비를 청하는 기우제, 왕족의 회복을 비는 치병 법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추모 의례다.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법왕 2년(600) 조에는 큰 가뭄이 들자 왕이 칠악사에 행차해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국왕이 직접 사찰을 찾아 비를 청한 것이다. 가뭄에 대응하는 왕실 의례의 장소로 사찰이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왕실의 질병에도 불교 의례가 동원됐다. 〈삼국사기〉 권5에 따르면 선덕여왕 5년(636) 3월, 왕의 병에 의술과 기도가 효험을 보이지 않자 황룡사에서 백고좌 법회를 봉행하고 승려들을 모아 〈인왕경〉을 강론하게 했으며 100명의 출가를 허락했다. 나라의 안녕과 재난 방지를 설하는 경전을 왕의 회복을 기원하는 법회에서 봉독한 것으로 왕실 치병을 위한 대표적 의례 기록이다.

전쟁 희생자를 위한 의례도 있었다. 〈삼국사기〉 권4 진흥왕 33년(572) 10월 20일조에는 전사한 사졸들을 위해 외사(外寺)에서 팔관연회를 열고 7일 만에 마쳤다고 적혀 있다. 권44 거칠부 열전에는 진흥왕 12년(551) 고구려에서 온 혜량을 신라가 승통으로 삼았으며, 이때 백좌강회와 팔관의 법이 시작됐다고 전한다. 이처럼 기우제에는 가뭄, 백고좌회에는 왕의 질병, 팔관연회에는 전사한 병사들이 각각 연결돼 있다.

고려시대 기록은 좀 더 구체적이다. 사찰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한 장소와 시기, 담당자까지 확인되기 때문이다.

고려 불교계의 급식 활동은 혜소 국사 정현의 행적에 남아 있다. 정현은 정종 10년(1044) 광제사 앞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 이듬해인 1045년에는 삼각산에 사현사를 지어 길손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머물도록 했다. 이에 정종은 홍제원과 서인관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그의 생애를 전하는 자료는 문종 14년(1060) 칠장사에 세운 혜소국사비다. 왕명으로 김현이 비문을 지었으며, 정현이 활동하던 시대와 가까운 때에 건립됐다.

홍수로 농사를 망쳤을 때 사찰 주변에 급식소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 〈고려사〉 권80 '식화지' 진휼조에 따르면 문종 18년(1064) 3월, 왕은 전년의 홍수로 가을 곡식이 피해를 입었다며 백성을 서둘러 구휼하도록 명했다. 담당자는 태복경 민창소였으며 같은 달부터 5월까지 개국사 남쪽에 음식을 준비해 곤궁한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재해가 발생한 뒤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식량 부족에 대응하면서 급식 장소와 운영 기간을 지정한 것이다.

같은 해 4월에는 임진강의 보통원(구제와 자선사업을 위해 설치된 사찰)에 죽과 채소를 마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급식 기간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였고, 대상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었다. 문종 25년(1071) 12월에는 현덕궁의 쌀 500석을 내어 보통원에서 곤궁한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숙종 6년(1101)에는 보통원에서 길손에게 석 달 동안 음식을 주고, 제위보에서는 가난해 생존하기 어려운 백성을 보리가 익을 때까지 진휼하도록 했다. 사찰 급식과 함께 시행된 국가의 빈민 구호 조치들이다.

개국사는 기근과 전염병이 겹친 상황에서도 급식 장소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고려사〉 권17 의종 6년(1152) 6월조에는 개국사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과 역질에 걸린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기록돼 있다. 구호 대상에 굶주린 이와 병든 이가 함께 포함됐다.

고려 말에는 사찰 안에 구호 업무를 맡는 기구가 설치됐다. 〈고려사〉 권80 공민왕 3년(1354) 6월조에 따르면 흉년이 들자 연복사에 진제색을 두고 유비창의 쌀 500석으로 죽을 쑤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다. 진제색은 진휼을 담당한 기구였다. 같은 기사에는 유비창의 곡물을 낮은 가격으로 백성에게 판매한 조치도 함께 기록돼 있다.

숭유억불 정책을 시행한 조선에서도 승려와 사찰의 급식·구호는 이어졌다. 〈세종실록〉 세종 4년(1422) 9월 10일조에는 기근을 피해 서울로 들어와 저자에서 구걸하는 백성들을 위해 흥복사에 구료소를 설치한 일이 나온다. 관원 윤성지와 승려 탄선이 죽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사찰에 마련한 구호 공간에서 관원과 승려가 함께 급식을 담당한 사례다.

탄선 스님은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는 일에도 참여했다. 같은 해 1월 15일 실록에는 도성을 수축하면서 동서에 구료소 네 곳을 설치하고, 혜민국 제조 한상덕에게 의원 60명을, 탄선 스님에게 스님 300명을 거느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이 구료할 대상은 공사에 동원된 군인 가운데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이었다. 급식뿐 아니라 국가 공사 현장의 환자 돌봄에도 스님들이 배치됐던 것이다.

사망자의 시신을 거두는 일도 스님의 소임이었다. 세종 9년(1427) 9월 1일에는 매골승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늘려 동·서활인원에 8명씩 소속시키는 사목이 마련됐다. 이들은 도성의 오부와 성 밖 10리를 나눠 맡았다. 월급과 소금·장, 봄가을 면포 지급 규정도 포함됐다.

활인원 관원은 이들의 근태를 살피고, 매장을 가장 많이 한 스님 한 명에게 해마다 관직을 주도록 했다. 사헌부와 한성부가 매장 업무와 활인원 관원의 감독 상태를 조사하는 조항도 뒀다. 스님의 시신 수습·매장 업무가 국가의 인력 배치와 보수 규정 안에 편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망자를 위한 의례는 수륙재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태조 6년(1397) 진관사에 조성된 수륙사는 국가가 수륙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이었다. 권근의 〈진관사수륙사조성기〉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죽은 뒤 제사를 받지 못하는 신하와 백성을 염려한 태조의 당부가 실려 있다. 선대의 명복을 빌고 중생에게도 복이 미치게 하려는 취지였다. 상·중·하 삼단과 욕실, 부엌, 곳간 등을 갖춘 전체 59칸의 시설은 그해 9월 완공됐다.

수륙재가 산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 위한 의례로 논의된 기록도 있다. 〈문종실록〉 문종 원년(1451) 9월 18일조다. 경기 지방에 질병이 퍼지자 수륙재를 베풀도록 한 일을 두고 사헌부 집의 박팽년이 반대했다. 의례로 질병을 구료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문종은 "자신의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심이 흉흉하고 답답해하므로 그 마음을 위안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종은 백성의 뜻을 따라 마음의 위안을 주려 한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불교계의 구호 활동은 확장돼 이어졌다. 한국불교계 구호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의 사례만 살펴봐도 조계종은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구호금 2억원을 전달했고, 아름다운동행은 이재민 임시주거단지에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차양막과 식료품 지원을 이어갔다.

2023년 모로코 지진 때는 국제합동구호단을 파견해 겨울용 텐트 150동, 책가방 500개, 위생키트 500세트 등을 전했으며 올해 9월 네팔 대홍수에도 10만달러 규모의 긴급구호가 진행돼 둔체 850가구에 식료품 키트, 베트라와티에 복구물품 300세트가 전달됐다.

또한 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는 2024년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아동친화공간을 마련해 유가족의 아이들이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았다.



방 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 정오
신도회장 도림 이윤희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